

우리에게 똑같은 자식입니다, 똑같이 소중하게 키웠어요.”

“이보게 젊은이,”

총독이 폴에게 말했다.

“자네가 언젠가 세상 경험을 더 쌓았을 때, 자네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불행을 알게 될 걸세.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신입견을 갖게 되는지, 감춰진 미덕에 주어져야 할 것을 권모술수에 능한 악에게 얼마나 쉽게 쥐버리는지 말아야.”

라 투르 부인이 권하자, 라 부르도네 씨는 식탁으로 와서 그녀 옆에 앉았네. 크레올 사람들이 하는 대로 쌀밥을 섞은 커피를 곁들여 아침 식사를 했지. 그는 작은 오두막의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과 청결함에,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두 가족의 유대감과 늙은 하인들이 바치는 헌신적인 노력에 매료되었네. 라 부르도네 씨가 말했다.

“이곳엔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밖에 없지만, 그윽한 낮빛과 어진 마음이 있군요.”

폴은 총독의 덕망에 매료되어 그에게 말했다네.

“총독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. 정직한 분이시니까요.”

라 부르도네 씨는 이 섬사람 특유의 성의 표시를 기꺼이 받아들였네. 그는 폴과 악수하며 그를 안아주었고, 자신과의 우정을 믿어도 좋다면 안심시켜 주었어.

아침식사를 마친 후, 총독은 개인적으로 라 투르 부인을 데리고 가서, 떠날 준비를 마친 배가 한 척 있으니, 머지않